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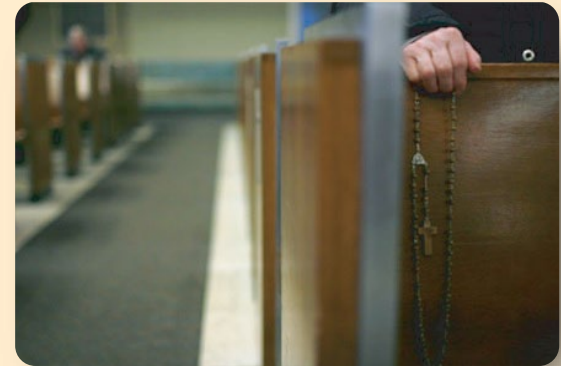
본당신부님께서 까만 미사보는 장례 미사용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미사용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십시오.

사제의 말에 순명하는 자세가 고마워 앞으로 더욱 언행을 조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까만 미사보 탓에 분심이 들었다니, 우리 마음을 휘방 놓아 미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사탄의 방법도 참 가지가지라 싶네요.

짐작컨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엄숙한 미사 전례모습에 아쉬움을 가지신 신부님의 경직된 가르침이라 생각됩니다. 미사보는 초대교회 당시에 여인들의 머리치장이 요란했던 점을 감안하여 내린 교회의 조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사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우들에게 경건한 삶을 일깨우기 위한 권고사항이었지요.

따져보면 까만 미사보가 장례미사에 적용된 일마저 말짱, 서양풍 습에 불과합니다. 장례에서 흰 베옷을 입는 우리 풍습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니깐요. 미사의 은총은 미사보 색깔이나 모양 혹은 착용 유무에 전혀 상관없이 베풀어집니다. 미사에서 ‘분심 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는 몰입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갖은 분심으로 주님 성찬의 은혜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작전에 휘둘리지 마세요.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로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신앙심

(집회 34,21-31)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8장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1-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행동과 실천으로 당신의 사랑을
가꾸어 나가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 사랑의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당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옵니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집회서 3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1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제사 드리면 부정한 제물이 되고
22 무도한 자들의 봉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3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불경한 자들의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많이 바치더라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24 날품팔이의 재산으로 제사를 바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이는 자와 같다.
25 궁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26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27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28 한 사람은 짓고 또 한 사람은 허무니
고생만 할 뿐 무슨 소용이 있느냐?
29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저주하니
주님께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느냐?
30 시체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은 뒤 다시 만진다면
씻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31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나가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
주겠느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신앙은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삶 속
에서 ‘나는 정말 신앙인이구나’하는 자부심을 느
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양 날개를 필요로 합니다. 날개를 한쪽씩 놓고 보면 분명 구분이 되지만 새가 날기 위해서 이 양 날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날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정의의 상관관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원의 평면적인 관점에서는 신앙과 정의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3차원의 입체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정의는 나는 새의 양 날개인 셈입니다. 흔히들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상황이나, 전쟁, 불평등한 사회구조, 인간의 고통과 죽음, 절망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인의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정의로운 사회’ 또는 ‘제대로 된 세상’에 대한 열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청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 안에 가두어둔 죽은 하느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느님, 특히 절망과 어둠이 짙게 드리운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바로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느님께 나의 눈과 마음을 열고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입니다. 이 관심은 단순히 동전 한 닢을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그런 상황으로 내몰게 한 불의한 사회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구조적인 악’과 맞서는 ‘사회정의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여 얻는 기복적인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그리스인의

신앙은 ‘너’와 ‘우리’를 향한 공동체 지향적이고 그런 만큼 스스로 지어놓은 ‘우리라는 경계선’을 사랑과 정의를 통해 끊임없이 넓혀 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인이 믿고 따르는 하느님은 사랑이시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배우고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의 증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우리’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나’는 어떻게 넓혀 갈 수 있을까요?

- 조진배 신부님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8장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3-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 가음동본당 성원1-2구역 신은주(로사리아) -

우리 가음동본당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올해 설립 38주년을 맞이한다. 「가음동본당 30년사」를 통해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1955년 창원군 상남면 시장부락에서 5~6명의 신자로 이루어진 공소 시절, 1977년 용지본당으로 승격, 1982년 가음동본당으로 개명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며 어느덧 설립 40주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초대 임덕(프란치스코 베니나띠)신부님 시대부터 현 11대 조정제(오딜론)신부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14구역, 30여개의 소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2대 신은근(바오로)신부님이 부임하시면서 교구 내에서 최초로 구역모임을 시작하였으니, 가음동본당의 소공동체 모임이 활성화 되고 단합이 잘되는 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 본다.

우리 성원1-2구역은 매월 첫째 목요일 구역모임과 셋째 목요일 반별 합동 소공동체 모임을 실시한다. 구역 모임엔 평균 15세대 20여명 정도 참석하며, 부부 모두 교우인 가정이나 교리실에서 말씀나누기와 활동 계획 등을 논의 한다. 이때 구역을 위한 빨랑카를 기꺼이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하다. 특히 주일날 차봉사 차례가 돌아오면 평소 직장 일에 바빴던 형제·자매들까지 술선수법하여 커피와 전



통차 등 다과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며 한마음 한 가족이 된다. 또한 구역의 경조사 때는 구역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구역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작년엔 공석 중이던 여성 구역장이 임명되어 홀로 구역을 이끌며 고군분투하던 남성 구역장은 물론 반장들에게도 큰 힘이 된 것은 기쁜 일이다.

돌아오는 5월쯤엔 우리 구역 모두가 단합대회 겸 둘레길 산행을 계획하며 벌써부터 기대로 가득하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쉬는 교우 회두권면 활동이 결실을 맺어 많은 쉬는 교우들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구역 행사에도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 남·녀 구역장과 반장들, 그리고 구역원 일동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본당과 구역을 위해 기쁘게 봉사하며, 교회로부터 받은 사도의 길을 일편단심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걸어가리라. 아멘.

